

토요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 2부 > 불교 대강좌

- 주 제 : 부처님의 因果緣으로 닿은 나의 개종 이야기
- 법 사 : 공영대 교수(화학과, 학사지원본부장)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1.1(토)	짜장면과 부처님	운천스님 (남원 선원사 주지)
11.8(토)	생활법문	원장스님
11.15(토)	우담바라	남지심(소설가)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일정 :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시 30분부터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영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10월 청년회 정기 법회



◎ 18일(토) 토요법회 후 좌선실과 법당에서 마가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청년회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매월 셋째 주(토) 13:30~ 청년회 법회가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가을빛 詩 전시

◎ 10.23(목)~10.29(수) 1주간 팔정도 광장에 대안스님(시인)의 시 40편을 전시 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와 함께 팔정도를 거닐어 보아요~



- ◎ 일 시 : 2014. 11. 1(토) 14:00~15:30
- ◎ 장 소 :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
- ◎ 내 용 : 추억의 가요, 국악, 색소폰연주 등
(김용희, 이밖음, 이수정, 김시호, 박길수, 원미, 선우혜경)
- ◎ 티켓보시 : 20,000원

법당 밖 안내석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2260-3016~19

종교인들의 토크神宮

tvN 오마이갓

스님, 목사, 신부님이 함께하는 토크, 오마이갓
자비명상의 대가 마가스님을 tvN에서 만나요!



소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는 변뇌 리셋,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
(채널 : 서울지역 17, 20번 등)

보시동참

10월 20일 불전 공양

₩ 2,497,000원

법타스님, 강은희, 곽원기, 권혁채, 김경은, 김광한, 김대현, 김동연, 김종관, 남창강, 문창수, 박재호, 신소이, 안대준, 안정수, 양은순, 원서준,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민기,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재철, 조경자, 조경희, 조분옥, 조찬미,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진영원, 최영희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455,000원

(법사비, 토요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팔정도 보시

김연주, 이보현, 조순식, 최윤재

인등 보시

황현석

공양 보시

❖ 불단 떡, 과일 : 정각원신도회

❖ 대중공양 : 박정극 학술부총장님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5214명 입니다.**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0월 25일 제264호(週刊)



번뇌에 머물지 말고 번뇌에 떠나지도 말라.
이 세상에 머물지도 말고 저 영원에 머물지도 말라.

「유마경」



「동국의종」에 핀 우담바라



◎ 정각원 법당 옆 「동국의 종」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습니다. 부처님을 의미하는 꽃으로 알려진 우담바라는 학계의 여러 의견이 있긴 하지만, 건학 108돌을 맞은 「동국의 종」에 상서로운 증표로서 나타났습니다. 동국대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상서로움이 늘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보현회 법회



◎ 20일(월) 원장스님을 모시고 직원불자모임 보현회에서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원장스님께서서는 120여명의 직원이 모인 가운데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주제로 부처님 行願을 실천하는 동국인이 되도록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임조교 수계 법회



◎ 21일(화) 원장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신임 조교와 정토선원(대전) 신도 등 14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수계자 모두는 불명을 받고 불자로서 청정한 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으로 닿은 나의 개종 이야기

학사지원본부장 공 영 대

I. 마음의 안식을 주는 대종교인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이 다른가?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꽃이다.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누구나 마음의 안식을 주는 종교를 가진다면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원을 만들 수 있다. 교리의 역사가 깊고 인류의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큰 종교를 가지는 것은 마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다. 오늘 저는 이공계 교육자/연구자로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경험론적 관점에서 비교 논리로 불교의 교리가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다가와서 어떠한 인생살이의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세계 10대 종교가 무엇인지 농담 삼아 묻습니다. 미국의 종교 통계사이트인 adherents.com에서 발표하기를 1위는 그리스도교(기독교+천주교, 21억), 2위 이슬람(13억), 6위 불교(3.7억), 10위 북한주체사상(2천만) 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권력과 합쳐지면 상위 10% 사람들의 무노동에 의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대신에 90%의 인민은 고통스러운 삶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역사가 깊은 종교의 목회자는 낮은 곳에서 청빈한 삶으로 수행 할 때 신도로부터 진실로 존경받고 역사에 남는 성자로서 기록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참 종교가 불교와 기독교라고 봅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저는 불교와 기독교를 체험한 신자로서 두 종교가 어떤 성향의 인격에 공합이 맞는 것인지 제 인생 경험을 통하여 간증하고자 합니다.

II. 두 분의 어머니 영혼이 나의 업을 줄여서 이끈 부처님과의 인연!!

저는 경남 산청군의 두메산골에서 2남2녀의 막내로 태어나 1살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고 독실한 불교 신자인 친할머니와 숙모의 슬하에서 4세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경남 진주의 부친 슬하의 가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 어머님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었던 영향으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10여 년간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을 꿰고 성서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가지면 행복해야 하는데 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의 저에게는 기독교 교리가 무언가 항상 허전하고 망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에게는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 종교를 강제로 믿다보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젊은 시절을 방황하게 한 동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부처님의 인연으로 이끈 두 분의 어머니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을 떠나서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는 부처님 인연의 소박한 출발 이었습니다. 물론 이 인연은 저희 부친도 혜화전문학교를 입학하여 6.25 전쟁 후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부자지간 인연의 기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를 10년 정도 접한 대학 초년병이었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불교학 개론 및 불교 철학의 수업을 통하여 불교 경전의 심오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저를 불교에 대한 진정한 입문의 동기를 마련해준 것은 장모님((고)김해 김 경임(호))의 친모에 대한 자비의 감사 제사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모의 이른 타계로 인하여 어머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저는 친모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처가의 첫 행사는 장모님의 주관으로 우리 형제도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었던 돌아가신 친어머님((고)김녕 김 경임님)에 대한 강남 봉은사에서 지극한 감사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운명인가는 모르겠지만, 두 어머니는 동명이인의 불자로서의 산자와 죽은자의 인연으로 맺어져서 저와 두 누님들을 부처님의 인연으로 이끌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중략) 장모님의 운명으로 얻은 아들인연, 스승의 은혜로 받은 첫 직장 인연인 국가연구원 생활, 첫 직장의 성공적인 적용으로 어려운 시절에 일본 미국의 해외 유학인연, 유학시절 어려웠던 생활에도 해외에서 부처님 불단 앞에서의 아들 돌잔치 인연, 등은 나도 모르게 점점 진솔한 불자로 개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중략) 이런 인연으로 두 누님들은 나보다도 수백 배 진정한 불자이며, 특히 큰 누님은 현재 운가사 여성신도 회장 까지 하게 되는 변화는 운명이 아니고야 누가 일부러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Ⅲ. 지천명의 늦은 나이에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선생이 된 인연!

저는 진정한 마음의 효도를 할 줄도 사실 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십이라는 늦은 나이에 모교로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애증의 부친께서 살아 계실 때도 못한 효도를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2005년도 부친상을 당했을 때, 두 누님과 집사람이 새 어머니의 기독교 장례식에 대하여 치열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두 누님의 생각은 부친은 유학자이자 불교 신자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식 장례절차와 분골 분산을 막고 불교식 천도제와 유골을 자연의 땅으로 돌리는 작업을 몰래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처음 부친께 진정한 효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누님과 집사람이 정성을 다한 불교식 천도제인 49제, 100일제, 소상제, 대상제를 삼천포 대방사, 하동 북천사, 성북구 운가사에서 지내면서 망부에 대한 영혼 천도의 효도를 원 없이 하였다고 지금도 말합니다.(중략)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해외 유학하고 귀국 후에 “모교 교수 안되나?” 하고 종종 물었던 부친의 소원을 부친 사후에 이루게 되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도 매년 두 누님과 집사람은 망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천수경(중략).

Ⅳ. 종교의 선택은 사주팔자에 맞아야 마음의 안식과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든다!

종교의 선택은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어서 서로가 합이 맞아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운명도 궁합이 맞는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를 입학한 청년기를 시발점으로 자신감 회복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과 끝없는 은인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모교 까지 오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순을 바라보면서 모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 할 수 있는 운명에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일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선배 원로 불자님들을 모시고 나의 개종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종교의 선택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사주팔자에 맞는 종교의 선택은 자신의 운명을 보다 풍요롭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원천입니다. 불교는 조용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에게 맞는 종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불교에 입문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화하여 타인을 자비심으로 배려하고 자아의 불성을 찾아서 스스로 매일 매일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평범의 연속이 비범”이라는 마음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부라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한 중생에 불과 합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공림 공영대 합장
